

## 벤처기업을 둘러싼 외부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 기업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다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강사)<sup>1)</sup> 김대진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겸임교수)<sup>2)</sup>

### 국문 요약

본 연구는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서 수집된 국내 벤처기업 데이터를 통해 벤처환경수준과 벤처기업확인제도의 혜택과 내부역량, 경영성과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고위험과 고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벤처기업의 기업역량에 미치는 환경적 요소들과 결합해 달성할 수 있는 성과 수준을 확인하였으며, 성과의 경우 재무성과와 기술성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벤처환경수준으로 대변되는 인프라 수준과 실제 벤처기업확인제도 혜택 정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매개변수의 경우 기업역량, 종속변수의 경우 재무성과와 기술성으로 구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벤처환경수준은 기업역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벤처기업확인제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역량의 경우 기술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재무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부역량이 벤처환경수준 및 벤처기업확인제도 혜택과 경영성과 간 관계를 매개한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벤처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해 환경에서 역량, 성과로 이어지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기업역량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아울러 벤처환경수준과 벤처기업확인제도에 대한 환경적 요소가 내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기 때문에 추후 개편된 벤처기업확인제도에 해당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경우 벤처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중심어: 벤처기업, 벤처환경, 벤처기업확인제도, 경쟁우위, 재무성과, 기술성과

## I. 서론

우리나라 벤처기업은 2020년 39,511개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연평균 4.8%가 증가했다. COVID-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벤처 관련 지표(20년 신설법인 12.3만개, 벤처투자 4.3조원, 벤처펀드 6.6조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리고 벤처기업 중 유니콘 기업이 15개('21년 기준)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 6월 기준 벤처기업의 전체 고용인력은 72.7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0.2% 증가하는 등 고용 창출에도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21). 정부에서는 벤처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12대 핵심과제를 마련하는 등 벤처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21). 벤

1)제1저자 :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강사, cweds517@cau.ac.kr

2)교신저자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겸임교수, yauchee@cau.ac.kr

· 투고일: 2023-11-14 · 수정일: 2024-03-13 · 게재확정일: 2024-03-19

처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정책은 단순히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벤처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벤처기업 생태계는 초기 벤처붐 시기보다 확장되고 있으며, 구성요인의 부분적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하규수 외, 2017). 이렇듯 벤처기업은 정부 지원정책을 통해 양적·질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정책만으로 벤처기업이 성과를 창출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기본적으로 벤처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 경쟁우위가 필요하며, 틈새시장에서의 제품 혁신을 꾀한다(Larsson & Sästén, 2016). 즉, 벤처기업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내부 역량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내부요인은 기업의 자체적인 역량개발 및 우수 인재 발굴 등을 통해 강화되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와 외부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역량이 강화되기도 한다. 즉, 벤처기업은 지원정책, 벤처 관련 인프라, 사회적 환경, 기업역량 등 외부환경 특성과 내부자원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Andrew, 1971; Child, 1972; Hofer & Schendel, 1978). 그리고 벤처기업은 대부분 신생기업 및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생존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네트워킹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규모의 한계로 인한 한계점에 부딪히는 경우도 발생한다(Acs & Audretsch, 1988; Vaona & Pianta, 2008; 김근환 외, 2019).

이렇듯 벤처기업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호간의 영향을 받으며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게 된다.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벤처기업들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벤처기업들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비즈니스 생태계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벤처기업은 자원에 대한 확보와 다양한 지원을 기반으로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Lin et al.,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부환경부터 기업의 역량과 경영성과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벤처기업의 기업 역량이 환경과 성과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벤처기업의 성과는 단순히 재무적 성과로만 판단하기는 힘들다. 벤처기업의 기본적 조건 중 하나는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사업에 도전하는 모험적인 기업을 의미한다. 즉, 기업의 성과가 단순히 재무적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성과 역시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성과를 재무성과와 기술성과로 구분하여 외부환경, 기업역량, 기업성과로 연계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2.1 벤처환경수준과 경쟁우위

비즈니스 생태계 및 기업 전략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보편적으로 외부환경의 특성과 내부자원 간의 조화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Andrew, 1971; Child, 1972; Hofer & Schendel, 1978). 특히 기업의 함축적 존재 의미이자 경쟁력인 자원(resource)은 경영환경 수준과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미치는 영향만 살피기 보다 환경의 수준과 경쟁력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기업 성과에 대한 설명력을 높여줄 수 있다고 본다(Andrew, 1971; Child, 1972; Venkatraman & Camillus, 1984; Govindarajan, 1986). 따라서 기업의 여러 자원이 모여 형성하게 되는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는 기업이 구매자의 비용을 초과하여 창출하는 가치이자, 경쟁자보다 높은 기업의 역량이나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Porter, 1980; Barney, 1991)이며, 기업 환경 수준과 함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여러 선행연구자들은 기업의 경쟁우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소들을 찾기 위해 다각도의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조직 및 기업내외부 환경 속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 관계를 밝혀내고 있다. 기업의 경쟁우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들은 다양하지만 조세나 규제, 환율과 인플레이션, 노동숙련도, 금융

및 정책의 불확실성이 보편적인 영향을 미친다(Roger, 1998; Schiffer & Weder, 2001; 박다인 & 박찬희, 2018). 예를 들어 M&A의 활성화 정도와 및 규제 완화 정도 역시 경쟁우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벤처 생태계에서는 상생형 M&A를 활성화하여야 생태계 요소 간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다고 보며, 강력한 규제는 벤처기업들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오지 못하고 죽음의 계곡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본다. 실제로 허영구(2016)는 국내 벤처환경이 직면한 과제로 M&A 활성화 및 벤처기업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M&A를 활성화하여 회수환경을 개선해야지만 창업을 촉진하고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결국 생존한 벤처기업들의 성과 및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규제 역시 기술창업 벤처기업에 한해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진입규제, 영업규제 등의 각종 규제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최소한의 네거티브 방식 규제만을 적용해야 벤처기업들이 내부적 역량을 지키며 생존 및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벤처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은 창업의 혁신이 시장의 효율과 연결되는 스케일-업 정책을 전개해 벤처기업이 성장과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창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는 사회구조에 대한 측면도 강조되고 있다.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면서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거나, 자원을 재분배·재결합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진취성이나 혁신성, 위험감수성과 같은 정신이 요구되며 이는 곧 수익과 가치 창출에 대한 기회 확인으로 이어져 경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창업생태계 내 기업가 정신에 대한 확장 요소는 창업생태계 주요 구성요소로 대변될만큼 중요한 사회적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배두현, 2021). 즉, 기업가 정신이 높은 사회분위기는 결국 경쟁우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가설 1: 벤처환경수준은 기업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벤처기업 제도와 경쟁우위

벤처기업이란 고위험과 고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기업으로 진취적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사업에 도전한다.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바는 없으나 다양한 학자 및 전문가, 국가에서 정의하는 공통적인 명제는 고위험과 고성장을 강조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 기반의 신생기업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은 「중소기업투자법」에서 벤처기업은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OECD 국가에서는 R&D에 대한 집중 수준이 높거나 기술에 기반한 경쟁우위를 보유한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의에 따라 1) 고위험과 고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진취적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사업에 도전하는 모험적인 기업, 3) 위험성이 높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얻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4) 하이테크 기반 기업(HTBF; High Technology Based Firm)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 벤처기업은 신기술 혹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전개하는 신생기업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생존하고 번영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김헌, 2008). 이를 위해 각국의 정부 및 기관들은 기업 성장단계에 맞춰 벤처기업들에게 필요한 세부적인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사각지대도 남지 않도록 전 범위에 걸친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지원정책은 과거 중소기업진흥 당시의 정책 및 요인에 기반하며 이를 통해 시장 불완전성을 고려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회가 다양하게 제공되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박다인 & 박찬희, 2018).

국내 벤처확인제도는 1998년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법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부처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벤처기업 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제공하고 있다. '21년도부터

는 민간이 주도하도록 확인제도 절차를 개편하였으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3(벤처기업 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 '20. 7. 1부터 '23. 6. 30까지 3년간 (사)벤처기업협회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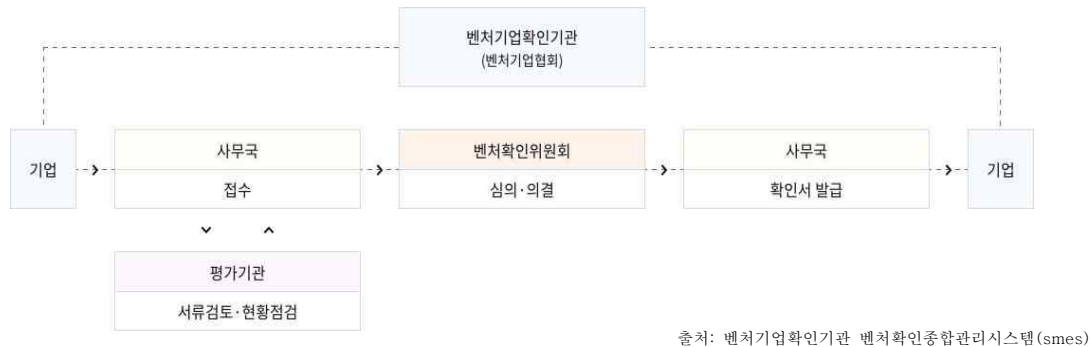


그림1.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 절차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은 각각의 법적근거에 기반해 세제와 금융, 입지, M&A, 인력, 광고로 대표되는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벤처기업 혜택제도는 벤처기업들의 생존 및 발전을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외부적 지원 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강원진 외, 2012). 실패 가능성이 높은 위험 속에서 정부에게 지원을 받는 경우 혁신을 기반으로 한 경영으로 야기되는 위험을 경감시키고, 민간투자를 유인해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와 성과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게 된다(Hall, 2002; Gans & Stem, 2003). 즉, 정부는 비즈니스 생태계 내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전개하거나 기술을 혁신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면 이를 보완해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제도를 수립하여 그 기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이상엽 & 이창민, 2014).

가설 2: 벤처확인제도는 기업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3 경쟁우위와 성과

기업의 경영성과는 한 기업이 전개하는 다양한 전략 및 활동들이 하나의 합을 이루어 만들어지는 결과이다. 기업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자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는 주주의 부를 극대화시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있기 때문에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Jensen & Meckling, 1976; Morck et al., 1988; Demsetz & Lehn, 1985). 그러나 기업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향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Naman & Slevin, 1993), 전략적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성과지표를 결과변수로 삼아 효과를 측정한다(Venkatraman & Ramanujam, 1986).

예를 들어 경쟁우위가 높은 기업은 경쟁기업들의 기술적 모방을 억제하며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생존 및 성장할 수 있다. 즉, 경쟁우위가 높을수록 제조 및 개발 역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보유 정도가 높아지거나, 기술개발 및 제품상용화 실적이 높아질 수 있다(이동석 & 정락채,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영성과를 재무성과로 볼 수 있는 매출액과 특허 등과 관련 있는 기술성과로 구분해 종속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기술성과는 기술 지표로 대변되며 보편적으로 보유한 특허 수나 신제품 출시 건수, R&D 지출 및 투자 비중을 일련의 성과로 본다. 이러한 기술성과는 제품 혁신, 시장의 확실성, 기술과 마케팅 협력 등으로 인해 좌우된다고 본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배경으로 시장에 존재하는 기존 제품과는 다른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

입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이 보유한 능력이 매우 중요함이 강조된다(Song & Parry, 1977). 또한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매출액 영업이익율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이인기 & 양동우, 2016; 송주영 & 성형석, 2015; 이용훈 & 심성학, 2018). 즉,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생태계 속에서 기업은 새로운 사회 기업을 빠르게 포착하고 반응하며, 위협에 대한 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자보다 먼저 개발·제조·마케팅 역량을 갖추는 것은 곧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본다(Batjargal, 2003).

가설 3: 기업역량은 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기업역량은 기술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4 외부 요인과 경쟁우위 및 경영성과

산업조직론에서는 기업별 사업이 당면한 경쟁적 환경요인이 궁극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결정한다고 본다(Bain, 1956; Bain, 2013; Coase, 1973; Conner, 1991). 즉, 기업이 놓인 환경적인 모든 요소들이 사업의 승패를 가르기 때문에 해당 요소 간 관계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벤처기업을 생존하게 하고, 결국 성장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존재하나, 오히려 이와 같은 정부지원금은 벤처기업의 자생력을 감소시켜 성과를 낮춘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Wallstern, 2017; 황정운 & 장용석, 2017). 이와 같은 실제로 정부의 가장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변되는 R&D 보조금에 대한 효과성은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이 되어 왔으며(Wallsten, 2000), 무분별한 지원은 오히려 벤처기업의 자생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른 측면으로는 정부의 지원은 관료적인 행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 지원 없이도 자체 역량을 갖춘 기업이며,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수행하지 않아도 됐던 R&D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오히려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에 투입되어야 할 기회가 방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황정운 & 장용석(2017)은 연구를 통해 정부의 지원은 사회적 성과만을 높이는 반면, 이미 자립기반이 확립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은 이들의 경제적 성과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즉, 정부가 지원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항상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친 시장개입은 정부의 실패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기영 & 조영삼, 2011; 이영훈 & 송유진, 2019).

국내외 지원 및 성과 간의 선행연구 대부분이 내부역량과 경영성과에 대한 관계 측면을 간과한채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기업의 역량을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김운정 외, 2018; 광규태 외 2018; 유나리, 2018). 예를 들어 이영훈 & 송유진(2019)의 연구는 정부지원자금과 내부역량, 벤처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와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내부역량에 대한 직접적인 매개효과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박다인 & 박찬희(2018)의 연구는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했으나, 벤처확인제도 효과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만 분석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지원과 성과 간 관계를 극단적인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없으나, 벤처확인제도를 통한 지원은 벤처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외부 자원의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내부역량이 경영성과 간 관계를 매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가설 5: 기업역량은 벤처환경수준과 재무성과 간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6: 기업역량은 벤처확인제도와 재무성과 간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7: 기업역량은 벤처환경수준과 기술성과 간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8: 기업역량은 벤처확인제도와 기술성과 간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 III. 연구 설계

####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그림 2>의 연구 모형을 근거로 하여 가설을 확인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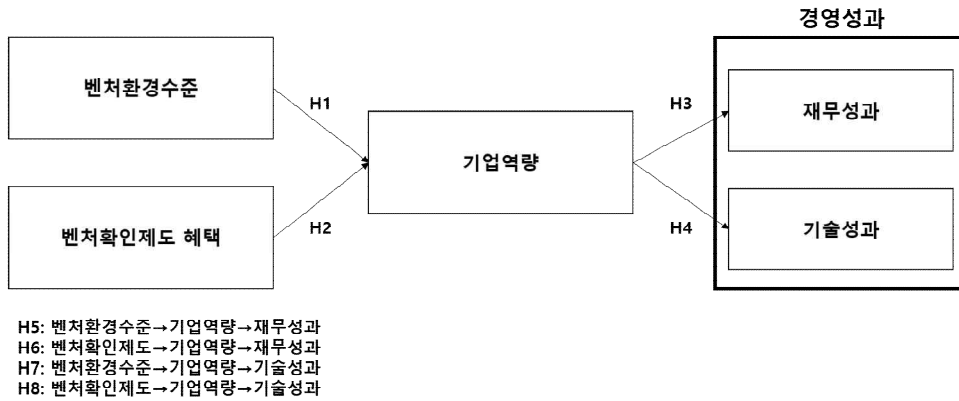


그림1. 연구모형

#### 3.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협회가 2020년 12월 공개한 2020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3(실태조사)를 기본 근거로 삼고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데이터를 수집한다. 벤처확인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정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그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연구에 활용된 2020년 데이터는 2019년 12월 말 기준 벤처확인기업의 일반현황과 경영성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컴포넌트 기반 구조방정식 기법을 사용하는 SmartPLS 2.0 패키지를 사용하였으며,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 v4.0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 3.3 측정 문항 선정

본 연구에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항목들을 선별한 뒤, 해당 내용에 대해 연구자 간 논의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연구에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활용된 변수 및 측정항목은 <표 1>과 같다.

벤처환경수준의 경우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벤처관련 규제완화 등의 5가지 항목을 측정한 벤처환경수준을 활용하였다. 벤처확인제도 혜택의 기술개발 촉진효과, 기업 이미지에 대한 제고 등의 광고효과, 세제혜택 효과 등의 8가지 항목을 측정한 벤처확인제도를 통해 귀사가 받는 혜택을 활용하였다. 매개변수인 기업역량은 개발역량, 제조역량, 마케팅 역량으로 측정한 경쟁사 비교시 귀사가 가진 혜택을 활용하였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와 활용된 항목들은 모두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종속변수인 기업의 성과는 재무성과와 기술성과로 구분하였으며 재무성과는 매출액으로, 기술성과는 특허등록건수로 대변하여 측정하였다. 다만, 종속변수 값들의 크기를 고려해 로그를 취한 형태로 계산해 연구에 활용하였다.

<표 1> 구성개념 및 측정항목

구성개념			활용 항목	
구분	정의	문항 요인	세부 분항	
독립 변수	벤처 환경 수준	벤처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적 요소의 수준	귀하가 생각하는 현재 벤처인프라 수준(K2)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벤처관련 규제완화
				창업 및 기업가적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사회분위기
	벤처확인제도 혜택	벤처기업이 벤처확인제도를 획득하며 얻는 혜택	벤처확인제도를 통해 귀사가 받는 혜택(K1)	벤처투자 활성화
				기술개발 촉진효과
				기업 이미지 제고 등 광고효과
				세제혜택 효과
				우수인력 확보에 유리
				입지 선정 시 유리
				자금조달 및 투자 유인효과
				정부지원제도 참여에 유리
				창업 관련 규제 완화 효과
				매개 변수
제조역량(생산 및 품질 역량)				
마케팅 역량(마케팅, 브랜드, 시장기회분석 역량)				
종속 변수	재무성과	벤처기업의 매출 성과	귀사의 손익계산서 중 매출액(D3-1)	매출액(백만원)
	기술성과	벤처기업의 기술 성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해외 산업재산권 합계(E2-1)	산업재산권등록 보유 건수
통제 변수	기업성장단계	벤처기업이 처한 성장 단계	기업성장단계(A2-2)	창업기, 초기성장기, 고도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벤처확인유형	벤처기업이 획득한 벤처확인제도 유형	벤처확인 유형(A1-4)	기술평가대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 IV. 실증 분석 결과

### 4.1 빈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표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지역 및 기업성장단계, 벤처확인유형, 제조업 여부 등을 <표 2>와 같이 분석하였다.

지역의 경우 서울/인천/경기가 1,293개(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경북이 166개(7.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업성장단계의 경우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이 982개(44.6%)로 나타났으며, 고도성장기에 접어든 기업의 경우 771개(35.0%), 초기성장기에 속한 기업이 398개(18.1%)로 나타났다. 벤처확인유형 분석 결과 기술평가보증 기업이 1,607개(7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개발기업이 265개(12.0%), 기술평가대출기업이 187개(8.5%), 벤처투자기업이 141개(6.4%)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여부는 비제조 기업이 741개(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자체제조 기업이 739개(33.6%)로 높게 나타났다.

<표 2> 빈도분석 결과

지역	빈도(개)	비율(%)	기업성장단계	빈도(개)	비율(%)
서울/인천/경기	1,293	58.8	창업기	34	1.5
대전/세종/충청/강원	343	15.6	초기성장기	398	18.1
부산/경남/울산	231	10.5	고도성장기	771	35.0
대구/경북	166	7.5	성숙기	982	44.6
광주/전라/제주	167	7.6	쇠퇴기	15	.7

벤처확인유형	빈도(개)	비율(%)	제조여부	빈도(개)	비율(%)
기술평가대출	187	8.5	자체제조	739	33.6
기술평가보증	1,607	73.0	제조+외주	620	28.2
벤처투자	141	6.4	전부외주	100	4.5
연구개발	265	12.0	비제조	741	33.7
합계	2,200	100.0	합계	2,200	100.0

## 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 4.2.1 요인의 신뢰성 및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본 연구에 활용된 변수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타당성 평가는 집중타당성 (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집중타당성을 통해 측정문항과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PLS의 부트스트랩(Bootstrap) 방식을 활용해 측정문항의 요인 적재량 값과 t값을 분석해 검증을 실시하였다.

요인적재량값은 대체적으로 0.6이상의 수치를 보였으나 K2-3항목의 경우 0.426 수준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Hair et al(1998)이 제안한 요인적재량 기준에 따르면 0.4이상이면 연구의 활용 가능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항목을 포함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므로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Fornell & Larcker, 1981). 신뢰성평가는 크론바흐 알파값과 합성신뢰도를 기반으로 검증하였다. 크론바흐 알파값은 모든 변수들의 값이 0.7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합성신뢰도 값은 기준값인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벤처환경수준의 3번 항목이 다소 값이 낮게 나왔으나 크론바흐 알파를 통한 신뢰도 분석 결과 해당 항목을 제거하는 경우 크론바흐 알파값이 낮아지기 때문에(.700)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활용하였다. AVE값은 0.45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Thompson, 2004).

<표 3> 요인의 신뢰성 및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구성개념	측정문항	요인 적재량	t값	Cronbach's $\alpha$	Composite Reliability	AVE
내부역량	F1-1	.849	16.692	.747	.855	.663
	F1-2	.739	8.175			
	F1-3	.850	19.221			
벤처확인제도 혜택	K1-1	.749	10.433	.849	.880	.482
	K1-2	.652	6.043			
	K1-3	.628	5.337			
	K1-4	.680	6.723			
	K1-5	.704	7.859			
	K1-6	.764	9.728			
	K1-7	.754	9.618			



	K1-8	.605	4.622			
벤처환경 수준	K2-1	.761	3.251	.715	.801	.457
	K2-2	.629	2.532			
	K2-3	.426	1.344			
	K2-4	.677	2.701			
	K2-5	.820	3.628			

#### 4.2.2 요인의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연구에 활용된 변수들 간 개념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판별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와 같다. 판별타당성의 경우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값보다 AVE 제곱근 값이 커야 확보된다고 본다(Fornell & Larcker, 1981). 분석 결과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값보다 AVE의 값이 높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본다.

<표 4>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벤처확인제도혜택	벤처환경수준
내부역량	3.350	.751	.663	
벤처확인제도	3.539	.745	.373	.482
벤처환경수준	3.160	.690	.181	.193

대각선 값:  $\sqrt{AVE}$

#### 4.3 경로분석 결과

가설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표 5>와 같이 평가하였다.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결과값이 양수이면 적합하다고 본다(Chin, 1998). R-sq값은 0.26 이상이면 적합도가 높다고 평가하며, 전체 모형의 적합도는 R-sq의 평균값과 공통성(Communality)의 평균값을 곱하여 제곱근 한 값으로 평가하는데, 0.30이상의 값을 보이면 적절한 수준으로 본다. 본 연구 모델의 경우 적합도는 모두 기준치 이상의 값을 보이기 때문에 모형 적합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표 5> 모델 적합도 분석 결과

변수	R-sq	Redundancy	Communality
재무성과	.019828	.020	1
기술성과	.138572	.139	1
기업성장단계			1
내부역량	.182497	.008	.663397
벤처환경수준			.456912
벤처확인유형			1
벤처확인제도혜택			.481592
평균값	.114		.800

모형적합도:  $\sqrt{0.114 \times 0.800} = 0.302$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 모델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PLS 경로분석 결과

경로	$\beta$	T-Statistics	결과
벤처환경수준 → 기업역량	0.133	1.022	기각

벤처확인제도혜택→ 기업역량	0.351	4.079***	채택
기업역량 → 기술성과	0.372	4.324***	채택
기업역량 → 재무성과	0.141	1.307	기각

\*\*\* p < 0.001, \*\* p < 0.01, \* p < 0.0

첫째, 벤처환경수준은 기업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beta=0.133, p>.01$ ). 이는 창업 환경 내 인프라 활용만으로는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했다고 볼 수 있다(박재환 & 안태욱, 2016). 둘째, 벤처확인제도혜택은 기업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beta=0.351, p<.01$ ). 이는 벤처와 관련된 인증을 받은 기업일수록 기술성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했다고 볼 수 있다(박다인 & 김대진, 2016). 셋째, 기업역량은 기술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beta=0.372, p<.01$ ). 이는 기업의 역량이 높아질수록 기술성과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기업역량 기업역량은 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beta=0.141, p>.01$ ).

#### 4.4 매개효과 분석 결과

##### 4.4.1 벤처환경수준과 재무성과 간 기업역량의 매개효과 분석

<표7>과 같이 벤처환경수준과 기술성과 간 기업역량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분석을 위해 Process Macro를 통해 Hayes(2012) 교수가 제안한 모델4를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4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사이를 매개하는 변수에 대한 효과를 확인 가능한 모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Hayes & Monotoya, 2017).

모델1 분석 결과 분석모형( $F=26.7929, p<.001$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벤처환경수준( $B=.1934, p<.001$ )은 매개변수인 기업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 분석 결과 분석모형은 ( $F=102.8658, p<.001$ ) 유의미하며, 독립변수인 벤처환경수준( $B=-.0271, p>.01$ )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매개변수인 기업역량 ( $B=.3072, p<.001$ )은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벤처환경수준이 기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업역량의 매개효과가 산출되었고, 매개효과는 .051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BootCI=.0343~.0696)되어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벤처환경수준과 기술성과 간 매개효과 분석

Variables	모델1				모델2			
	벤처환경수준→기업역량				벤처환경수준 → 기업역량 →기술성과			
	B	SE	t	p	B	SE	t	p
Constant	2.5321	.1162	21.7990	.000	-1.2798	.1156.116	-11.0743	.0000
벤처환경수준	.1934	.0284	6.7982	.0000	-.0271	.0254	-1.0638	.2876
기업역량					.3072	.0210	14.6217	.0000
기업 성장단계	.0613	.0169	3.6237	.0003	.1289	.0150	8.5923	.0000
확인제도 유형	.0843	.0170	4.9608	.0000	.1042	.0151	6.8956	.0000
Model Fit	R-sq = .0435, F = 26.7929, p=.0000				R-sq =.4347, F = 102.8658, p=.0000			
Mediation effect	Effect = .0510, BootSE = .0088, BootCI= .0343~.0696							

이어서 <표 8>과 같이 벤처환경수준과 재무성과 간 기업역량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1 분석 결과 분석모형( $F=44, p<.001$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벤처환경수준( $B=.2253, p<.001$ )은 매개변수인 기업역량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 분석 결과 분석모형은 (F=158.7600, p<.001) 유의미하며, 독립변수인 벤처환경수준(B=.1230, p<.001)과 매개변수인 기업역량(B=.2946, p<.001)역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벤처환경수준이 기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업역량의 매개효과가 산출되었고, 매개효과는 .066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BootCI=.0470~.0880)되어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벤처환경수준과 재무성과 간 매개효과 분석

Variables	모델1				모델2			
	벤처환경수준→기업역량				벤처환경수준 → 기업역량 → 재무성과			
	B	SE	t	p	B	SE	t	p
Constant	2.2959	.1049	21.8966	.0000	1.1956	.1334	8.9641	.0000
벤처환경 수준	.2253	.0259	.7076	.0000	.1230	.0303	4.0544	.0000
기업역량					.2952	.0246	12.0046	.0000
기업 성장 단계	.0776	.0152	5.1179	.0000	.3425	.0176	19.4879	.0000
확인제도 유형	.0967	.0161	6.0141	.0000	.0243	.0187	1.3022	.1930
Model Fit	R-sq = .2398, F = 44.6461, p=.0000				R-sq =.2244, F = 158.7600, p=.0000			
Mediation effect	Effect = .0665 , BootSE = .0104, BootCI= .0470~.0880							

4.4.2 벤처확인제도 혜택과 재무성과 간 기업역량의 매개효과 분석

<표 9>와 같이 벤처확인제도 혜택과 기술성과 간 기업역량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분석 역시 Hyses 교수가 제안한 모델4를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1 분석 결과 분석모형(F=81.9180,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벤처환경수준(B=.3592, p<.001)은 매개변수인 기업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 분석 결과 분석모형은 (F=103.0115, p<.001) 유의미하며, 독립변수인 벤처환경수준(B=.0307, p>0.1)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매개변수인 기업역량(B=.2946, p<.001)은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벤처확인제도 혜택이 기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업역량의 매개효과가 산출되었고, 매개효과는 .105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BootCI=.0782~.1212)되어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벤처확인제도 혜택과 기술성과 간 매개효과 분석

Variables	모델1				모델2			
	벤처확인제도→기업역량				벤처확인제도 → 기업역량 → 기술성과			
	B	SE	t	p	B	SE	t	p
Constant	1.8658	.1106	16.8705	.0000	-1.4444	.1098	-13.1493	.0000
벤처환경 수준	.3592	.0249	14.4407	.0000	.0307	.0242	1.2668	.2054
기업역량					.2946	.0219	13.4357	.0000
기업 성장 단계	.0858	.0162	5.2824	.0000	.1074	.0151	7.1159	.0000
확인제도 유형	.0589	.0162	3.6435	.0003	.1310	.0150	8.7501	.0000
Model Fit	R-sq = .0.1221, F = 81.9180, p=.0000				R-sq =.1892, F = 103.0115, p=.0000			
Mediation effect	Effect = .1058 , BootSE = .0109, BootCI= .0782~.1212							

이어서 <표 10>과 같이 벤처확인제도 혜택과 재무성과 간 기업역량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1 분석 결과 분석모형(F=111.6890,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벤처환경수준(B=.3684, p<.001)은 매개변수인 기업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 분석 결과 분석모형은 (F=155.3016, p<.001) 유의미하며, 독립변수인 벤처환경수준(B=-.0677, p<.05)과 매개변수인 기업역량(B=.3337, p<.001)역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벤처환경수준이 기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업역량의 매개효과가 산출되었고, 매개효과는 .066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BootCI=.0470~.0880)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어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벤처확인제도 혜택과 재무성과 간 매개효과 분석

Variables	모델1				모델2			
	벤처확인제도→기업역량				벤처확인제도 → 기업역량 → 기술성과			
	B	SE	t	p	B	SE	t	p
Constant	1.7440	.0971	17.9677	.0000	1.7350	.01252	13.8612	.0000
벤처환경 수준	.3684	.0223	16.4905	.0000	-.0677	.0285	-2.3724	.0178
기업역량					.3337	.0257	12.9860	.0000
기업 성장 단계	.0929	.0154	6.0365	.0000	.0144	.0187	.7729	.4397
확인제도 유형	.0678	.0145	4.6735	.0000	.3354	.0176	19.0950	.0000
Model Fit	R-sq = .1324, F = 111.6890, p=.0000				R-sq =.2206, F = 155.3016, p=.0000			
Mediation effect	Effect = .1229 , BootSE = .0136, BootCI= .0973~.1501							

## V. 결론

### 5.1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불확실한 환경에 놓인 벤처기업들이 외부 환경의 영향 및 지원속에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경우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벤처기업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각 항목 간 관계를 밝혀내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벤처환경수준이 기업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으나, 벤처확인제도혜택이 기업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는 인프라 수준으로 대변되는 벤처환경수준만으로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박재환 & 안태욱, 2016). 또한 벤처확인제도혜택이 기업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선행연구들과도 방향성을 같이 한다고 보여진다(박다인 & 김대진, 2016).

둘째, 기업역량이 기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는 기업의 역량이 높아질 수록 기술성고가 높아질 것이라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박다인 & 김대진, 2016). 이에 반해 기업역량이 매출로 대변되는 기업의 양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선행연구들과는 상이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이인기 & 양동우, 2016; 송주영 & 성형석, 2015; 이용훈 & 심성학, 2018). 그러나 역량이 즉각적인 매출로 이어지기에는 정량적 수치로 대변되는 기간의 영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의 흐름에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기업역량은 벤처환경수준과 재무성과 간 관계를 매개하였으며, 벤처확인제도혜택과 재무성과 간 관계 역시 매개하였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적인 요소들이 직접적으로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경쟁우위를 가진 기업일수록 외부 환경요소들을 활용하여 보다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기업역량은 외부 환경과 경영성과 간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벤처기업들이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벤처기업을 둘러싼 환경 및 지원 요소만으로는 벤처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내

부 역량이 매개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최근의 글로벌 혁신 관련 연구 흐름과도 유사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지적재산기구(WIPO)는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혁신수준을 측정해 발표하며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제도와 내부 역량(인적자원, 인프라 등)이 혁신산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고 있는데 주요 분석 결과 혁신 투입과 산출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 개선과 더불어 지속적인 내부 혁신을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2년 기준 세계혁신지수 종합지수 상위국으로 발표되었으나 그 순위가 6위에 그치면서 특히나 혁신 투입과 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즉, 본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높은 기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환경 혹은 내부 역량의 개별 성장이 아닌 결합된 성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 5.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실제 벤처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해 환경에서 역량, 성과로 이어지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기업역량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다만 최근 벤처기업확인제도가 개편되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 및 선정 기준이 상이해졌기 때문에 추후 이 점을 반영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21년 2월부터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역할이 이전되었으며, 각계 전문가들이 추천한 50명의 위원이 벤처기업으로서의 혁신성과 기술성 등을 평가해 벤처다운 벤처기업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기존의 벤처투자유형과 연구개발유형 외 혁신성장유형이 신설되며 재무적 안정성을 보지 않고 혁신성과 기술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새롭게 신설된 기준으로 평가된 벤처기업들에 대한 분석이 새롭게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현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새롭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가 내포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경쟁우위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변수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존재한다. 현재 조사에 활용중인 비즈니스모델 및 기업의 전략적인 측면에 대한 항목을 보다 다양한 항목으로 구분해 평가하는 경우 추후 벤처 생태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활용도구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REFERENCE

- 곽규태, 천영준, 최세경(2018). 정부 정책이 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원의 수단, 대상 그리고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혁신학회지*, 13(2), 83-103.
- 김근환, 권태훈, 전승표(2019).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 활용한 제조 중소기업의 특징과 성과에 관한 연구. *지능정보연구*, 25(4), 1-33.
- 김대진, 박다인(2016). 기업의 전략 및 정부 지원 정책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혁신형 인증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1(1), 13-27.
- 김윤정, 서윤교, 홍정임(2018). 벤처기업의 내부역량과 성장단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부 지원자금 활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21(2), 636-662.
- 김현(2008). 정부지원사업이 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생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IT 산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자료, 1-76.
- 박다인, 박찬희(2018).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기업경쟁력 및 기업 성과 창출 전략. *벤처창업연구*, 13(6), 177-189.
- 배두현(2021).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 정책연구보고서, *SGI(Sustainable Growth Initiative)*, 제2021-01호.
- 송주영, 성형석(2015). 기술자원의 전략적 자원속성과 경쟁우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기술중소기업의 기술평가자료를 이용한 VRIO Framework 의 실증분석. *기술혁신학회지*, 18(3), 416-443.

- 이동석, 정락채(2010). 학술연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과 기술사업화능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 *중소기업연구*, 32(1), 65-87.
- 이인기, 양동우(2016). CEO 의 기술적 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기업의 기술적 역량 매개효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1(2), 167-182.
- 이기영, 조영삼(2011).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의 평가 및 개선 방안, 서울: 한국금융연구원.
- 이영훈, 송유진(2019). 정부지원자금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내부역량의 매개효과와 기업 성장단계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4(2), 31-46.
- 유나리(2018). *이노비즈 인증이 벤처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자금조달과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용훈, 심성학(2018). 자원기반관점의 벤처·이노비즈기업 기술혁신성에 대한 실증 연구. *벤처창업연구*, 13(3), 85-98.
- 하규수, 홍길표, 이춘우(2017). 2002-2012 년의 한국 벤처창업정책의 특징 연구. *벤처창업연구*, 12(1), 15-24.
- 황정윤, 장용석(2017). 사회적 기업 지원의 딜레마-정부보조금, 약인가 독인가. *한국정책학회보*, 26(2), 225-258.
- 허영구(2017). 한국 벤처생태계 완성을 위한 정책제안, KISTEP, *In(Inside and Insight)*, 21. 2017. Agust.
- Acs, Z. J., Stam, E., Audretsch, D. B., & O'Connor, A.(2017). The lineages of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approach. *Small Business Economics*, 49(1), 1-10.
- Andrew, K. R.(1971). *The Concept of Corporate Strategy*, Irwin, Homewood, IL
- Bain, J. S.(1956). *Barriers to new competitio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ain, J. S.(2013). *Barriers to new compet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Barney, J.(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1), 99-120.
- Batjargal, B.(2003). Social capital and entrepreneurial performance in Russia: A longitudinal study. *Organization studies*, 24(4), 535-556.
- Child, J.(1972). Organization structure and strategies of control: A replication of the Aston stud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63-177.
- Coase, R. H.(1973). The nature of firm, *Economica*, 4: 386-405.
- Conner, K. R.(1991). A historical comparison of resource-based theory and five schools of thought within industrial organization economics: do we have a new theory of the firm?. *Journal of management*, 17(1), 121-154.
- Demsetz, H., & G. Lehn.(1985). "The Structure of Corporate Ownership : Caus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 pp.1155-1177.
- Fornell, C., & Larcker, D. F.(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ovindarajan, V.(1986). Decentralization, strategy, and effectiveness of strategic business units in multi-business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4), 844-856.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Hayes, A. F.(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White Paper, 1-39.
- Hayes, A. F., Montoya, A. K., & Rockwood, N. J.(2017). The analysis of mechanisms and their contingencies: PROCESS vers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ustralasian Marketing Journal*, 25(1), 76-81.
- Jensen, M., & W. Meckling(1976).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 pp.305-360.

- Lin, Y. H., Chen, C. J., & Lin, B. W. (2017). The influence of strategic control and operational control on new venture performance. *Management Decision*, 55(5), 1042-1064.
- Morck, R., A. Shleifer., & R. W. Vishny.(1998). Management Ownership and Market Valuation: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 pp.293-315.
- Porter, M. E.(1980). Industry structure and competitive strategy: Keys to profitability. *Financial analysts journal*, 36(4), 30-41.
- Roger, H.(1998). *The Dynamics of Industrial Location: The Factory, the Firm and the Production System*, John Wiley & Sons.
- Schiffer, M., & Weder, B.(2001). Firm Size and the Business Environment: Worldwide Survey Results, World Bank, *IFC Discussion Paper*. 43.
- Thompson, B.(2004).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Understanding concepts and applications*. Washington, DC, 10694.
- X. M. Song., & M. Parry.(1997). The demerminants of Japanese new product success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4(1), 64-76.
- Venkatraman, N., & Camillus, J. C.(1984). Exploring the concept of “fit” in strategic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9(3), 513-525.
- Venkatraman, N., & Ramanujam, V.(1986). Measurement of business performance in strategy research: A comparison of approach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4), 801-814.
- Wallsten, S. J.(2000). The effects of government-industry R&D programs on private R&D: the case of 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The RAND Journal of Economics*, 31(1), 82-100.

# Effects of External Factors surrounding Venture Businesses on Performanc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orporate Capabilities

Park, Da-in<sup>1)</sup>

Kim, Dae-jin<sup>2)</sup>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the venture environment, the benefits of the venture business verification system, internal capabilities, and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the actual data of domestic venture companies collected in the Venture Business Precision Survey.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level of venture infrastructure did not affect the company's capabilities, but it was found that the venture company confirmation system had a positive effect. In the case of corporate competency, it was found that it had a positive effect on technological performance, but had no effect on sales performance. However, the research results confirmed that internal competenc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enture environment level and the benefits of the venture business confirmation system and business performance.

This study has the implications of confirming a series of processes leading to competency and performance in the environment using data from actual venture companies, and confirming the importance of corporate competency. In addition, since we confirmed the effect of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venture environment level and the venture business confirmation system on the internal performance, if the process is introduced in the later reorganized venture business confirmation system, we will examine the factors that can enhance the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es. A more precise check is expected.

**Keyword:** Venture Business, Venture Environment, Venture Business Confirmation System, Competitive Advantage, Business Performance, Technical Performance

---

1)First Author, Part-time Lecturer, College of Business & Economics, Chungang University, cweds517@cau.ac.kr

2)Corresponding Author, Adjunct Professor, General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yauchee@cau.ac.kr



## 제1 저자 소개

- 박다인(Park, Da-in)
-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강사, 경영학 박사  
<관심분야> : 경영전략, 벤처, 창업, 문화예술 등

## 교신 저자 소개

- 김대진(Kim, Dae-jin)
-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겸임교수, 경영학 박사  
<관심분야> : IT수용, 기업성과측정, 플랫폼 비즈니스, 문화예술소비 등